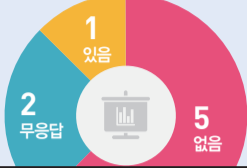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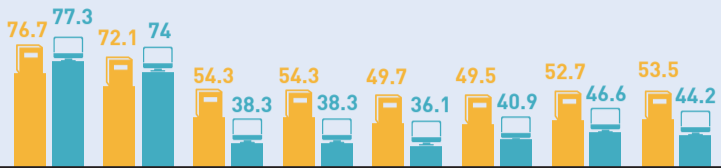


## 4» 학생 자치의 위기

국제캠퍼스  
단과대학별  
회칙 유무



## 5» 예산·재정 문제 점검



## 6» 대학생, 대선 후보에게 묻다



지난 달 30일 조인원 총장과 학생들이 봄을 맞이해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 이수형 기자)

# 학사제도 통합, 캠퍼스 명칭 변경 등 양 캠퍼스 협력 필수

## 총학 재선거 결과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재선거로 치러진 2017학년도 제 49대 총학생회(총학) 선거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 ‘디딤돌’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과 이화영(기계공학 2015) 부회장이, 서울캠퍼스(서울캠) ‘열·일’선본의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과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회장이 당선됐다.

이번 제49대 총학은 일반적인 일정보다 3개월가량 늦게 출범한 탓에 등록금 책정과 학사제도 개편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학기 중간의 재선거로 치러진 만큼 서울캠 총학은 지난 3월 31일부터, 국제캠 총학은 4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공백 기간이 생긴 만큼 양 캠퍼스 총학은 중점 공약으로 내세운 학사제도 개편을 포함해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대학본부 측과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그간 양 캠퍼스 대표자 부재로 인해 재수강제도와 같은 학사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졸업역량강화 TF’와 2017년 등록금

책정은 지금껏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캠 권 회장은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학사제도 개편과 기숙사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해, 비대위에서 업무를 전달받고 여러 단과대학 대표들을 만나며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 역시 ▲전과제도의 제한 ▲영어강의 토익점수 대체 등 캠퍼스 간 차이나는 학사제도를 통합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제캠 진 회장은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학업을 위한 공간인만큼 수강신청제도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 총학의 주요 공약 중 서울캠 총학과 협력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공약들이 여럿 존재해, 향후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 ▲캠퍼스 명칭변경 ▲캠퍼스 간 학사제도 통합의 경우 진행 과정상 양 캠퍼스 차원의 논의와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캠 권 회장은 “지난해까지는 양 캠퍼스 총학간 교류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권예하·금혜영)	당선자	국제(진도원·이화영)
13,486명	선거권자수	11,807명
50.62%	투표율	60.41%
69.55%	찬성률/득표율	71.9%

## 제3 중핵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①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의 탄생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 3가지를 ‘인간’, ‘사회’, ‘자연’이라고 지정한 것이 이 무렵부터다.

초기에는 ‘인간의 가치탐색(인가탐)’과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를 중심으로 ‘인문학 중심교육’을 표방했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이후 4년 동안 준비를 한 끝에 2016년,

‘인간’에 해당하는 인가탐, ‘사회’에 해당하는 우사세, 이 두 중핵교과에 이어 ‘자연’에 해당하는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세 번째 중핵교과로 편입시켰다. 이는 16학년부터 필수 교양으로 선정되었으며 16학번 이후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인 만큼 빅문의 취지는 ‘과학에 대한 호감과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세 번째 중핵과목으로 들어섰던 빅문은 기존 중핵들과는 조

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강좌당 수강인원의 차이다. 기존의 중핵과목인 인가탐, 우사세가 40~50명 정도로 운영이 됐다면, 빅문은 80~90명을 웃도는 숫자로 시작됐다. 첫 번째 학기였던 2016학년도 1학기에는 80~90명씩 양 캠퍼스 각각 5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약 90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구성됐다. 그러나 ‘신입생이 누적될 시 강좌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환 학장은 지난 해 3월 “과학 중핵 강좌까지 추가로 열 수 없으므로 적절히 기존 중핵교과

강좌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교수법에 있다. 인가탐, 우사세에선 채용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7명의 교수들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등의 각 분야에 따라 ‘팀 티칭’을 하도록 구성됐다. 각 반의 담당 교수는 있되, 중등 교육과정의 담임제처럼 전담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며 담당하는 반에서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과학 토론 등을 이끄는 방식이다.

▶3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사령

66기 수습기자 <명>

- ▲박예령(언론정보학 2017)
- ▲이후승(한국어학 2017)
- ▲정종희(언론정보학 2017)
- ▲안나연(간호학 2017)
- ▲장유미(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 ▲최명규(소프트웨어융합학 2017)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카카오톡 플러스 ID : 경희대 학내신문 대학주보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전문가 칼럼

끝나지 않은 세월호의 상처  
송영복(스페인어학) 교수 >> 7면

